

# 호박은 연 마음 많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우) 58753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3-1  
Tel 061)243-3169 Fax 061)244-7345  
E-mail mokpo@kfem.or.kr  
홈페이지 <http://mp.ekfem.or.kr>

 '목포환경운동연합' 검색하세요 🔍

 '목포환경운동연합' '좋아요' 눌러주세요

 @mokpokfem 팔로우 해주세요

발행일 2023.06.19. 제135호



5월24일(수) 바다의 날 기념 캠페인<고래를 위한 바다 해양플로깅> 목포FC축구단과 함께(평화광장)

## / 목 / 차 /

- |            |               |                  |             |
|------------|---------------|------------------|-------------|
| 02 지역 현안   | 08 활동 보고      | 13 5.18민중항쟁 글과 시 | 16 광고 / 캠페인 |
| 03 특별 현안   | 10 회비 납부      | 14 동호회 소개        |             |
| 05 회원 기고 1 | 11 회계 보고      | 15 신입회원 안내 /     |             |
| 07 회원 기고 2 | 12 환경그림동화책 소개 | 환경 단상            |             |

# 목포 버스, 공공교통을 말할 때

글 | 이진아 활동가

교통이 발달하면서 짧은 시간에 먼 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지역간 접근성이 커지며 움직임이 활발하다. 편리해졌으나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자동차가 빠르게 도시의 가로와 공간을 잠식하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랜시간 함께 하는 대중교통 '버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목포는 작년부터 버스 문제로 시끄러웠다. 매년 100억 원에 달하는 시민 열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됐지만, 버스회사가 연료 가스비를 미납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 두 달간 버스 운행이 멈췄다. 목포시에서 긴급하게 비상수송차량 운행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목적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출퇴근, 등하교 일상에 영향을 줬다. 버스에 의존해야하는 청소년은 친구와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고, 일터가 먼 곳에 있던 어르신 한 분은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라지만, '제대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민들은 불편을 감내했다. 버스는 다시 운행을 재개했지만, 시민의 발이 되어준 버스의 운행 중단은 '이동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했다.

최근, 목포 시내버스 회사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가 버스 운행을 6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경영포기 의사를 밝혔다. 또 다시 버스 운행이 중단될까,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이산화탄소처럼 오래도록 남아 피로감을 높인다. 살기 좋은 도시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고려하는 조건 1순위는 자녀교육이며, 2순위가 '교통, 이동권'이다. 도시를 관통하는 버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하다. 시민이 겪는 불편, 불안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을 주춤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목포시는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시 담당자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버스가 멈추지는 않는다. 버스 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 버스 운영체계에 대해 논의 중인데 공영제와 준공영제 각각 연구용역을 맡겼다. 6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7월에 시민공론화 자리를 열고,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겠다"라며, "노선개편 주민설명회 기간이 짧았기에 시 홈페이지, 시내버스 앱을 통해 의견 수렴 게시 공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 시내버스는 민영제인데,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운영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민영제, 준공영제, 공영제로 나뉜다. '영', 누가 운영 주인으로 있느냐에 따라 민간기업이면 민영제, 공공기관이면 공영제이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사이가 아니다. 기존의 민영제가 사업자의 적자를 보존해주면, 준공영제는 사업자의 원가(이윤) 보존해주는 민영제나 다름없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교통"을 강조할 때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가속화 속에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분야 배출의 16.6%로 매우 높은 편이다. 공공교통 확대는 탄소 발생을 줄이는 정의로운 방법 중 하나이다. 공공교통 이용이 높아지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주차난 해소, 가로수와 넓은 보행공간 확보, 자전거 도로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이끌 수 있다. 탄소중립 목포시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앞서 목포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에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주민 발안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주민조례(안)은 "공영버스 도입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간 교통격차를 완화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 체계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중략)"을 목적으로 한다.

- ▶ 주민조례안 참여 대상은 만18세 이상 선거권 있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목포시민입니다.
- ▶ 서명운동 기간 : ~ 6월 말까지 2,614명 이상 목포시민 서명 동참이 결실합니다. 아래 큐알코드로 접속해서 가족, 지인 모두가 서명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목포버스 공영버스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 주민조례 청구  
<https://url.kr/8hk3lz>



<https://www.juminego.gov.kr> 또는 검색어에 "주민e직접"을 입력하고 사이트 접속 후 **서명하기** 클릭하면 목포 공영버스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10만 어민 다 죽는다!

## 전국 어민 대회 공동결의문

일본 정부가 공언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점이 코앞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어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온 우리 어민들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72%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이다.

방사선 안전 원칙에 ALARA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ALARA 원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한다면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그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 정부인가? 아니면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광주·전남 공동행동 활동 현황

(2020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공동행동 결성)

2023년

- 4월 12일 연대 재정비 대표자 회의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으로 전국 개칭
- 4월 12일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광주YMCA)
- 광주, 전남환경운동연합이 실행위원으로 활동
- 4월 27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광주·전남 공동행동 출범  
→ 대표자 회의와 출범기자회견(구 도청 앞)
- 5월 19일 G7 정상회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광주·전남 동시다발 기자회견  
→ 전남서부(전남도청) / 전남동부(여수 이순신광장) / 광주(5.18민주광장)
- 6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전국 행동 집중의 날 2차  
→ 여의도 국회 앞 전국 어민회 중심, 농민, 환경운동연합, 시민 등 참여(3000여 명)
- 6월 20일 ‘전남도지사와 윤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에 제소하도록 적극 앞장서라’ 기자회견(전남도청 앞)
- 6월 24일 전국 행동 집중의 날 3차(서울시청 동편)
- 6월 26일 목포권역별 간담회(무안, 영암, 신안)



#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글 | 김윤호 회원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고 나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직장에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고, 외출 시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분리배출에 신경 쓴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도 자연스레 관심과 흥미가 생겼다. ‘해안 쓰레기 줍기’를 참여하고, ‘엿을편’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 5월에 황윤 감독이 새만금 갯벌 수라에서 7년간 찍은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수라>를 관람할 기회가 생겼다. ‘수라’ 갯벌은 군산에 있는 남수라 마을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라>는 30년간 진행 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며 바다를 막는 정부와 바다(갯벌)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마을 주민,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모습, 간척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종교단체,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모습이 담겨있다. 물막이 공사로 갯벌이 육지가 되어가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화롭던 남수라 마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며 분열한다. 갯벌 생명들도 죽어간다.

갯벌의 생명들은 하루 두 번 당연히 들어오던 바닷물이 안 들어오자 어땠을까? 예를 들어 저녁이면 각자의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던 가족이 어느 날 시간이 늦었는데 안 들어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강자와 싸우는 소수 약자의 모습 같아 보였다. 하지만 갯벌의 생명들은 강했다. 갯벌을 막고, 몇 년이 흐르자 안쪽에 갇힌 물은 썩기 시작했다. 그제야 정부는 방조제 한 구간을 뚫고, 이후 갯벌에 바닷물이 들어오자 다시금 갯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영화 속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은 철새들의 군무를 보며 “아름다움을 본 죄”라고 말한다. 그 아름다움을 본죄로 오동필 단장은 갯벌을 떠나지 못하나 보다. 황윤 감독은 관객과의 대화에서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응원해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선물로 엽서에 도요새 스탬프를 찍어 주셨다. 세상에 독립투사처럼 음지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황윤 감독에게 그런 인상을 받았다.



5월 20일에 ‘수라갯벌 만나는 날’ 탐방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했다. 회원, 시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코스는 해창갯벌-새만금 방조제-점심식사-심포 망해사 걷기-수라갯벌 탐방 순서이다.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자기소개 시간이 주어졌다. 혼자 참여해서 조금 심심했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재미있게 나를 소개했다. 일행 중 영어 선생님은 개인 마이크까지 챙겨오며, 멋진 팝송을 불러주셨다. 목포환경운동연합 해양갯벌위원장 김경완 선생님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박병삼 선생님이 들려주는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한 노력, 활동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해창갯벌에 도착했다. 갯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새롭게 조성된 도로 주변에 있는 공터처럼 보여 마음이 아팠다. 인근에 해창산과 해창마을이 있어서 ‘해창갯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해창산은 국립공원에 속해 있음에도 환경부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바위와 흙을 구하기 위해 암석 채취 허가를 내줬다. 지금은 해창산에 산봉우리가 하나도 없다.

지난 2003년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 종단을 대표한 4분의 성직자가 서울까지 65일간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를 처음 시작한 장소로 해창갯벌은 환경운동의 성지로 불린다. 해창갯벌 앞에는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뜻을 담은 장승이 여럿 세워져 있다. <수라>영화에도 장승을 세우는 모습이 나온다. 아이러니하게

도 해창갯벌 옆 부지에서 2023년 세계 청소년 아영활동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우리는 갯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신 분들을 응원하며, 하얀 천 위에 각자의 염원을 담아 글과 그림을 그리고 장승 옆에 걸었다. 나는 이렇게 적었다. ‘아프게 하면 너도 아플 것이다.’ 단체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김경완 선생님이 새만금은 군산에서 김제시까지 섬들을 연결하는 방조제인데 길이가 33.9km로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한다. 세계 최장 방조제 1위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주변 섬이 육지와 연결되면서 생긴 사연도 들려주셨다. 새만금 방조제 옆을 달리다 보니 몇 년 전 군산 여행 때 들렸던 무녀도, 선유도 섬들이 보였다. 그때 새만금 방조제를 보면서 감탄사를 날렸는데, 지금은 새만금방조제를 지나면서 막힌 바다를 보니 안쓰럽다. 새만금은 지금도 사방팔방으로 다리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심포 마을에 도착해 고창에서 나는 백합탕(새만금 갯벌에서 전국 백합 생산 90% 차지했는데 이제 자취를 감췄다)을 먹었다. 식사 후 새만금 바람길을 따라 망해사, 두곡서원이 있는 숲길을 걸었다. 바람길 이름처럼 봄바람이 시원했다. 아까시나무 꽃도 피어있고, 꿀벌통도 보였다. 20분쯤 걷다 보니 전망대가 나왔다. 진봉망해대였다. 올라서니 멀리 군산공항이 보였다. 바로 옆 마을이 남수라 마을이라고 한다. 다시 버스를 타고 군산공항 옆에 있는 남수라 마을에 도착해 수라갯벌로 향했다. 마을은 조용했다. 여기저기 빛바랜 횃집 간판과 부서진 수족관이 보였다. 갯벌이 살아 있을 때에는 왠지 낯선 번성했을 마을이 지금은 주민 한 명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10분 정도 걸으니 수라갯벌이 나왔다. 진입로 옆에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고, 마을 주민 두 분이 갯벌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고 있었다. 우리는 박병삼 선생님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갯벌은 말라 있어 운동화를 신고도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 흙바닥에 새, 고라니 등 다양한 야생동물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영화에서 봤던 ‘마지막’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수라갯벌을 상상하며 이곳에 왔는데, 가까이서 본 수라갯벌에는 마른 진흙과 염생식물, 죽은 조개껍데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었다. 일정 상 갯벌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되돌아왔다. 영화 속 화려한 새 군무도, 다양한 갯벌 생명도 볼 수 없었다. 오동필 단장과의 일정이 안 맞아 만날 수 없었다. 수라갯벌 탐방은 마른 갯벌처럼 먼지만 남기고 끝났다. 황윤 감독은 2시간 가량의 영화에 아름다운 수라 갯벌을 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을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다.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만큼은 너와 내가 이체동심(異體同心)의 마음으로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나의 수라갯벌 탐방기를 마친다.

# 옥수수 잎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마음 설레고

글 | 문지영 회원

나에게 10평의 텃밭이 생겼다. 엄밀히 말해 동생에게 텃밭이 생겼다. 동생이 주로 농사를 짓는다. 나는 그저 잠깐 다니면서 텃밭의 매력에 흠뻑 빠져가고 있다. 동생이 텃밭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나에게 밭에 가서 작물의 상태를 살펴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먹을 만큼 자란 쌈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맡겼다. 오랜만에 찾은 텃밭은 놀라움, 신비함 그 자체였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 정겹고, 살랑살랑한 바람이 쾌적하다. 서걱서걱 옥수수 잎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마음 설레고, 노을 지는 붉은 하늘 풍경은 덤이다. 텃밭에서 흙을 만지는 이 시간을 무어라 형용할 수 없지만 그저 무아지경이다.

내가 이 텃밭을 만난 건 올해 2월이다. 전남농업박물관에서 주말농장 분양을 했다. 선착순 모집하는 데 지역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편이다. 운이 좋게 분양 받을 수 있었다. 10평의 땅을 4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설 때 땅이 생겼다는 기쁨, 작물은 무엇을 심을지, 잘 자라기는 할지, 수확하면 누구와 나눌지, 기대감에 설레기도 했다.

농사에 대한 전문지식은 하나 없지만, ‘농사하는 법을 영상으로 배웠어요.’ 모종을 심을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고추, 감자, 옥수수, 가지, 토마토, 상추, 당귀, 깻잎 등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심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해서 시간이 쌓이고 계절이 바뀌고 있다. 이제 100일 남짓 되어가는 텃밭에서 잔잔한 즐거움, 뿌듯함,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추, 토마토는 열매가 익어가고, 가지는 이제 막 꽃을 피웠다. 상추, 깻잎, 당귀 등등 쌈 채소는 이미 수확해서 여기저기 나눠 먹고 있다. 뜨거운 여름이 오면 봄에 묻은 씨감자 한 톨에서 주렁주렁 매달려 나올 감자를 캐고, 옥수수, 고추, 토마토를 수확하게 된다. 소박한 열매를 나눌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할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공간들이 다른 체험을 하게 하는데 10평의 땅은 나에게 땀 흘리며 공들여 키운 풍성한 먹거리로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 01일(토) 에코트레킹 모임 / 환경운동연합 창립 30주년 행사(서울) / 다이어트 프리마켓 부스 참여
- 03일(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해남 목동리 해변) / 소식지 편집 / 부주초 환경교육
- 04일(화) [기자회견]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주민직접참여 행동 선포 / 영산강 유역 쌀 오염 관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면담 / 연산초 환경교육
- 05일(수) 다이어트 모임 / 생태기행 웹 포스터 제작 / 식목일 웹 포스터 제작
- 06일(목) 소각장 관련 자문위원회 참여 / 생태기행 웹자보 회원 카톡 발송 / [기자회견] 건설현장 불법고용, 불법하도급 근절 촉구(목포노동지청)
- 08일(토) 생태기행 달리도(30명) / 소식지 우편 발송 준비 / 함께사는길, 신입회원 선물 발송 / 목포시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견차리 시설 관련 질의와 답변 요청 공문 발송
- 11일(화) 6.15대표자 회의 / 함께사는길 낭독 모임
- 12일(수) 물 절약 캠페인(구 경찰서 사거리)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을 위한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광주YMCA) / 다이어트 모임 / 연산초 환경교육
- 13일(목) 섬 쓰레기 조사(암태도, 자은도) / 소식지 우편발송 / <수리> 공동상영 관련 연대 단체 제안
- 14일(금)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목포시민 간담회(전남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 목포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주민 조례 청구 회원 참여 문자 발송
- 16일(일)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목포신항)
- 17일(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진도 하조도) / 에코리딩 모임 / 지구의 날 고하도 해안 플로깅 홍보 / 엮을편 모임
- 18일(화) <수리> 공동상영 준비회의
- 21일(금) 지구의 날 고하도 해안 플로깅 / 향도초 환경교육
- 23일(일) 박승희 열사 32주기 추모식 참여
- 24일(월) 신입활동가 수련회(4박5일) / 해상풍력 인식 증진을 위한 주민조직화 방안 강연(온라인) / 프로젝트 컨소시엄 회의
- 26일(수) 공생의 물길 영산강 프로젝트 선포식 참석(평화광장) / 물 절약 캠페인(구 경찰서 사거리)
- 27일(목) 상괭이 보호구역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여수 시의회) / 폐기물 평가 오리엔테이션



▶ 4월 13일 섬 쓰레기 조사(암태도, 자은도)



▶ 4월 14일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목포시민 간담회



▶ 4월 21일 지구의 날 고하도 해안 플로깅



▶ 4월 27일 상괭이 보호구역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여수 시의회)

- 02일(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환경교육 / [기자회견] 지리산 골프장 추진 중단 촉구 및 감사청구(전남도청) / <수라> 공동상영 목포 시사회 감독과 대화(CGV목포평화광장점/ 110명)
- 03일(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생물 탐사 달리도(1박2일) / 아파트 폐기물 분리배출 실태 평가
- 04일(목) <수라 갯벌 만나는 날> 웹포스터 홍보 / 생태기행 웹포스터 홍보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환경교육
- 05일(금) 제27회 어린이날 큰잔치(목포시하당 청소년문화센터) 자원순환 부스 참여
- 08일(월) 함께사는 길 잡지 회원 우편 발송 / 5월 종합소득세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문자
- 09일(화) 수라 갯벌 탐방 홍보 / 생태기행 웹포스터 회원 안내 카톡 발송
- 10일(수)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방문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회원 문자 발송 / 다이어트 모임
- 11일(목) 생태기행 현장 답사 /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관련 주민조례 서명운동(연산아파트)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관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내방
- 12일(금) 소식지 계획안 작성중 / 프리하당 회의 자료 작성중
- 13일(토) 생태기행(목포 5.18 사적지) / 에코트레킹 모임
- 14일(일)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관련 주민조례 서명운동(평화광장)
- 15일(월) 5.18민중항쟁 43주년 기념식(전남도청) / 창립기념행사 준비위원회 1차 회의 / 수라갯벌 탐방 안내 회원 문자 발송
- 16일(화) 수라 갯벌 탐방 계획안 수정 / 6.3 프리하당 환경의날 행사 준비 회의 / 제2회 4.16 생명과 안전 청소년 작품공모전 시상식 취재요청서 언론사 발송 / 5.18문화행사 <제비> 영화 관람 / 일자리통합센터 환경교육
- 17일(수) 6.15 집행위 회의(디딤) / 바다의 날 해양 플로깅 홍보 웹포스터 수정
- 18일(목) 5.18기념식(목포역)
- 19일(금)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전남도청) / 함께사는 길 읽기모임
- 20일(토) 수라 갯벌 만나는 날 탐방(28명) / 5.18문화행사 부스 운영\_일본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 서명, 캠페인(평화광장)
- 22일(월) 전남환경운동연합 대표자 간담회(순천) / 프리하당 준비회의 / 해상풍력 인식개선을 위한 현장답사(통영) / 소식지 준비회의
- 23일(화) 일자리통합센터 제로웨이스트 교육 / 시내버스 시민공론화 회의(오거리 문화센터)
- 24일(수) 바다의 날 해양 플로깅 목포FC축구단과 함께(평화광장) / 프리하당 보도자료 작성 / 다이어트 모임 / 목포시 연담(특화사업)
- 25일(목) 프리하당 홍보, 언론사 보도자료 발송 / 제325차 집행위원회의 / 플로깅 쓰레기조사 카드 정리 / 보해+스몰액션 스토어와 플로깅센터 개소식
- 26일(금) 다이어트 모임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광주-전남 공동행동 회의 참석
- 30일(화) 에코리딩 모임 / 생태와 재생에너지 공론장 신안군 재생에너지 개발정책과 지역주민 이익공유제 논의 / 프리하당 홍보
- 31일(수) 바다의 날 해양 플로깅 보도자료 언론사 발송 / 다이어트 모임 / 전남 신안 입자도 습지 보호구역 송전선로 사업 방향 모색 회의



▶ 5월 2일 수라 공동상영 목포 시사회



▶ 5월 20일 수라갯벌 만나는 날



▶ 5월 24일 바다의 날 해양플로깅 목포FC축구단과 함께(평화광장)



▶ 5월 30일 생태와 재생에너지 공론장(신안군)

## 희비 납부

2023년 4월 ~ 2023년 5월

(유)세라돌 / (주)보해양조 / (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 / (주)현성건설 / 게스트하우스 달꾸메 / 담을꿈협동조합 / 대신아이시티(주) / 더오래뜰 / 디자인중앙(진선화) / 만인계마을기업 / 목포대성신협 / 목포아이쿱생협 / 목포연희네포차 / 영암일보(주) / 특허사무소 다임 / 해바라기치과의원 / 감의갑(장미선) / 강덕수 / 강동호 / 강명곤 / 강복수 / 강석원 / 강선애 / 강성희 / 강영규 / 강영두 / 강제석 / 강종량 / 강창원 / 강철수 / 강화심 / 고경석 / 고광업 / 고광진 / 고광현 / 고성철 / 고윤희 / 고정화 / 공남은 / 공석준 / 팍신영 / 팍재구 / 구봉선 / 권수한 / 기재명 / 김가영 / 김경미 / 김경숙 / 김경애 / 김경완 / 김경주 / 김경희 / 김공경 / 김관오 / 김광미 / 김광수 / 김광호 / 김근대 / 김근순 / 김기범 / 김기봉 / 김기철 / 김나영 / 김대중 / 김도관 / 김도형 / 김동욱 / 김동호 / 김말금 / 김맥아 / 김명숙 / 김명종 / 김명화 / 김명희 / 김무영 / 김미영 / 김미정 / 김미화 / 김민국 / 김민규 / 김민지 / 김병옥 / 김병철 / 김보현 / 김상훈 / 김선남 / 김성길 / 김성륜 / 김성진 / 김성희 / 김수린 / 김수미 / 김숙자 / 김순미(멜로아) / 김순영 / 김승현 / 김시연 / 김애숙 / 김애자 / 김양준 / 김영남 / 김영민 / 김영범 / 김영식 / 김영운 / 김영제 / 김영준 / 김영현 / 김영호 / 김영희 / 김오심 / 김옥 / 김옥미 / 김완석 / 김용구 / 김용진 / 김웅기 / 김원이 / 김원중 / 김유경 / 김유현 / 김윤임 / 김윤호 / 김은경 / 김은미 / 김은희 / 김일용 / 김장원 / 김재영 / 김재혁 / 김정민 / 김정훈 / 김정희 / 김종국 / 김종수 / 김주재 / 김지수 / 김지숙 / 김지희 / 김진형 / 김진희 / 김창식 / 김창훈 / 김철주 / 김탁 / 김태근 / 김태수 / 김태웅 / 김판삼 / 김학주 / 김해정 / 김행연 / 김현근 / 김현숙 / 김현우 / 김현정 / 김형기 / 김형애 / 김혜정 / 김홍안 / 김화영 / 김환석 / 김효정 / 김훈동 / 나광봉 / 나양명 / 나연운 / 나천귀 / 남명숙 / 남주연 / 노애란 / 노천우 / 다겸 / 류금순 / 류미현 / 류수영 / 류용철 / 류재청 / 마홍식 / 명소운 / 모원종 / 무관 / 문보현 / 문성중 / 문승현 / 문원규 / 문정임 / 문지영 / 문호 / 문호산 / 민경관 / 민은주 / 민영철 / 박갑수 / 박경봉 / 박경서 / 박경양 / 박경재 / 박권철 / 박금단 / 박기남 / 박기훈 / 박대성 / 박대현 / 박동구 / 박동환 / 박문옥 / 박미덕 / 박미숙 / 박미정 / 박민규 / 박병구 / 박병삼 / 박상현 / 박선옥 / 박선하 / 박성수 / 박성영 / 박성욱 / 박성원 / 박성준 / 박성현 / 박세륜 / 박수인 / 박수정 / 박순미 / 박안섭 / 박영운 / 박용 / 박용일 / 박용호 / 박유정 / 박유진 / 박윤길 / 박은숙 / 박은정 / 박은화 / 박은희 / 박재범 / 박재신 / 박재홍 / 박종수 / 박종위 / 박주원 / 박진 / 박찬경 / 박창수 / 박창우 / 박창현 / 박천웅 / 박최균 / 박필수 / 박현 / 박현 / 박현경 / 박현숙 / 박혜숙 / 박화진 / 박희성 / 방창식 / 배동희 / 배영식 / 백동진 / 백성숙 / 백재봉 / 변재영 / 봉문수 / 서경수 / 서병권 / 서연순 / 서영선 / 서영숙 / 서영옥 / 서재연 / 서정 / 서정만 / 서지영 / 서한배 / 선채원 / 설지연 / 성보석 / 성상훈 / 소혜인 / 손민원 / 손봉현 / 손철주 / 손현 / 송광훈 / 송다희 / 송두호 / 송미정 / 송영미 / 송영준 / 송정미 / 신경희 / 신동영 / 신용주 / 신현령 / 안만호 / 안명희 / 안정배 / 양덕수 / 양세영 / 양수민 / 양승미 / 양승희 / 양정호 / 양주동 / 양창숙 / 양판수 / 양현주 / 양한 / 양효식 / 오경섭 / 오민임 / 오수진 / 오숙향 / 오승원 / 오영출 / 오왕근 / 오재록 / 오창현 / 오하늘 / 오현자 / 오현주 / 우대열 / 우성주 / 우종식 / 위라겸 / 위준철 / 유경호 / 유영근 / 유영순 / 유영엽 / 유영창 / 유원석 / 유은경 / 유은숙 / 유주훈 / 유지원 / 유혜정 / 유효진 / 윤금봉 / 윤기현 / 윤남 / 윤동준 / 윤선영 / 윤성광 / 윤성수 / 윤승희 / 윤용석 / 윤원희 / 윤인수 / 윤종인 / 이경매 / 이경석 / 이경아 / 이경택 / 이광봉 / 이교이 / 이금래 / 이금희 / 이기식 / 이동훈 / 이명숙 / 이명희 / 이미순 / 이방수 / 이보라미 / 이봉섭 / 이상엽 / 이성호 / 이성환 / 이송환 / 이수 / 이승용 / 이승우 / 이승익 / 이승한 / 이승희 / 이양진 / 이영숙 / 이용기 / 이용자 / 이용철 / 이용현 / 이우주 / 이원기 / 이은주 / 이일호 / 이재경 / 이재우 / 이재이 / 이재현 / 이정석 / 이정식 / 이종민 / 이종환 / 이주연 / 이주환 / 이준화 / 이지우 / 이지현 / 이진아 / 이진형 / 이창일 / 이창현 / 이충완 / 이학승 / 이현숙 / 이현승 / 이현진 / 이현철 / 이형광 / 이형님 / 이형숙 / 이형완 / 이혜령 / 이혜용 / 이화 / 이효빈 / 이희은 / 임경숙 / 임광휘 / 임성기 / 임성진 / 임은아 / 임은희 / 임지현 / 임진욱 / 임창욱 / 임태삼 / 임혁 / 임효철 / 장관호 / 장근천 / 장동춘(박민아) / 장복천 / 장영미 / 장옥진 / 장유선 / 장이주 / 장이진 / 장지은 / 장진실 / 장향금 / 장희웅 / 전경님 / 전남실 / 전대열 / 전명희 / 전상보 / 전성욱 / 전성철 / 전양수 / 전준수 / 전준영 / 전현호 / 전형숙 / 정경순 / 정고운 / 정대호 / 정동욱 / 정미라 / 정병이 / 정상문 / 정성배 / 정세영 / 정수민 / 정순용 / 정승원 / 정연수 / 정연우 / 정연희 / 정영주 / 정영호 / 정우영 / 정유나 / 정유미 / 정유나 / 정윤정 / 정인성 / 정인숙 / 정재근 / 정종하 / 정종삼 / 정지범 / 정창권 / 정철주 / 정철희 / 정태연 / 정현찬 / 정형권 / 정홍조 / 정효준 / 조광운 / 조미정 / 조상현 / 조소연 / 조애련 / 조애순 / 조영규 / 조영인 / 조옥현 / 조완오 / 조용만 / 조원기 / 조이환 / 조재문 / 조정양 / 조중배 / 조창익 / 조철제 / 조혜향 / 조호빈 / 주성은 / 주훈석 / 지이화 / 진성필 / 진지연 / 진택근 / 차나람 / 차선미 / 차용만 / 차용훈 / 채희준 / 최경 / 최경만 / 최경수 / 최국진 / 최규광 / 최근욱 / 최명숙 / 최명희 / 최비호 / 최석원 / 최선국 / 최선희 / 최성국 / 최송주 / 최순재 / 최승운 / 최승희 / 최양선 / 최영란 / 최영섭 / 최영숙 / 최영철 / 최예화 / 최완수 / 최용선 / 최원석 / 최은기 / 최은병 / 최은주 / 최이문 / 최정관 / 최정삼 / 최정훈 / 최정희 / 최지선 / 최진상 / 최철수 / 최태욱 / 최현영 / 최호봉 / 최화병 / 최환석 / 최효 / 추연성 / 하영성 / 한양규 / 한은섭 / 한추희 / 허진홍 / 현인숙 / 홍갑석 / 홍선기 / 홍성혁 / 홍세영 / 홍정우 / 황선주 / 황순원 / 황순진 / 황형수 / 황혜미

2023년 4월

수 입		
항 목	구 입	
회 비	개인회비	6,804,800
	단체회비	295,000
	소 계	7,099,800
후원금		150,000
기타수익		1,300,009
이자수익		0
예비비		0
차입금		3,000,000
*후원금 - 후원회원 15만원		
*기타수익 - MPA사업 100만원 - 생태기행 참가비 30만원		
*차입금 - 차입 : 300만원		
당월수입금		11,549,809
전월이월금		405,101
합 계		11,954,910

4월

2023년 5월

수 입		
항 목	구 입	
회 비	개인회비	11,003,000
	단체회비	370,000
	소 계	11,373,000
후원금		150,000
기타수익		1,200,000
이자수익		0
예비비		0
차입금		0
*후원금 - 후원회원 15만원		
*기타수익 - MPA사업 120만원		
*4월 CMS 3차 5월 2일 입금		
당월수입금		12,723,000
전월이월금		1,149,160
합 계		13,872,160

5월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1,080,000
	조사연구	52,000
	홍보비	313,500
	행사비	266,800
	연대사업	589,247
소 계		2,301,547
회 의 비	총회비	0
	위원회비	113,500
소 계		113,500
인 건 비	급여	4,012,400
	복리후생비	1,333,680
	상여금	0
	퇴직적립금	572,499
소 계		5,918,579
업무추진비	출장비	240,909
	활동비	80,000
소 계		320,909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0
	도서인쇄비	542,280
	통신광열비	597,710
	소모품비	0
소 계		1,139,99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0
	보험료	188,400
	원천징수분	198,000
	지급수수료	554,745
	차입금상환	0
소 계		1,041,145
당월지출금		10,805,750
통장잔액		1,149,160
합 계		11,954,910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972,000
	조사연구	0
	홍보비	0
	행사비	0
	연대사업	461,581
소 계		1,433,581
회 의 비	총회비	0
	위원회비	228,000
소 계		228,000
인 건 비	급여	4,012,560
	복리후생비	1,781,100
	상여금	0
	퇴직적립금	366,666
소 계		6,160,326
업무추진비	출장비	114,300
	활동비	0
소 계		114,3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선비	0
	도서인쇄비	60,000
	통신광열비	220,580
	소모품비	36,200
소 계		316,78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15,060
	보험료	100,000
	원천징수분	99,000
	지급수수료	583,735
	차입금상환	0
소 계		897,795
당월지출금		9,150,782
통장잔액		4,721,378
합 계		13,872,160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포지회가 소개하는 "지구"를 살리는 환경그림동화책 소개

1999년에 설립된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포지회 '어린이 책 문화 교육 운동'을 실천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책을 읽고, 연구하며 좋은 책을 권장하며, 어린이 삶을 바르게 가꾸는 일을 2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목포시 상동에 목포지역 최초의 민간도서관 [하늘을 나는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도서관'을 지향하는 책 문화공간입니다. 어린이 책과 문화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 섬 지은이: 이명애 / 출판사: SANG

인간이 만들어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 후 해류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빙빙 돌고 있는 플라스틱 인공섬이 우리나라 면적의 14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사실을 바닷새가 바라본 관점으로 지은 그림책입니다. 작가는 다큐멘터리에서 플라스틱 섬의 존재를 접한 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사람들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반대로 다시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환경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 찌저적 지은이: 이서우 / 출판사: 북극곰

꼬마 펭귄의 모험을 다룬 『찌저적』에는 단 세 단어만 등장합니다. 바로 “찌적” “찌저적” “뚝”입니다. 이 글자를 끝으로 이 그림책에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꼬마 펭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글자가 없어도,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혼자 가 된 꼬마 펭귄의 마음과 생각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얼음 조각에 의지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꼬마 펭귄을 보는 것만으로 함께 멋진 세계 여행을 하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세 단어는 안타깝게도 남극의 얼음이 녹는 소리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저 멀리 남극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대머리 사막 지은이: 박영진 / 출판사: 미세기

『대머리 사막』은 풍요로웠던 자연이 어떻게 황폐한 사막이 되어 갔는지 보여줍니다. 중국을 여행하고 온 작가가 사막화의 문제점을 몸소 체험하고 어린이에게 전하는 진지한 메시지입니다. 나무와 숲, 동물이 풍요롭게 살던 공동체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사냥과 개발, 산림 훼손 등으로 주변은 집이 빼곡하게 들어선 갈색 도시로 바뀌어 갔고, 동물들은 살지 못하고 떠납니다. 욕심껏 많은 집을 짓던 사람들도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새로운 환경을 찾아갑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편안하게'를 외치던 인간마저 떠난 자리에 모래바람 부는 사막만 남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 살아남을 수 없는 황량한 대머리 사막.



### 열매 하나 지은이: 전현정 / 출판사: 파란자전거

『열매 하나』는 인간이 필요한 것과 선호하는 것들을 극대화하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는 현대 사회를 주인공 싱과 마을 사람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특히 GMO 등 식량 증대와 기업 이윤 극대화를 이유로 한 가지 곡식만을 대량으로 심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질병과 그에 대비하기 위해 더 강한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만들어야만 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생태계의 경고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종의 다양성이 갖는 힘에 대해, 하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하나가 모두 모여 있어야만 온전하게 굴러가는 생태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 오월의 영웅들을 만나고 와서, 광주민주화항쟁

박준아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6학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망월동 국립묘지를 다녀왔다. 우리가 공기처럼 너무 익숙해서 알지 못했던 '민주주의'라는 것을 6학년이 되고 수업을 통해 알게 되고 나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오월의 영웅 외에 다른 분들도 뵈게 되었다. 오늘 가서 보니 영웅 중에서 나보다 어린, 당시 11살의 어린아이도 있었다. 그분들을 보고 나니 마음이 아프며 저러 왔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느꼈다. 이분들을 뵈고 나니 이분들이 지켜려 했던, 지켜왔던 민주화를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곳곳에서 자유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자유와 죽음 그 사이에서 민주화를 외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이 있었던 1980년 5월의 광주를 잊지 못할 것이다.

## 빨간물감

강서울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6학년)

빠르게 날아오는 총알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생에게 날아간다

광주라는 도화지 위에 빨간 물감이 칠해진다  
검은 아스팔트 위에, 시청 앞에 빨강게 칠해진다

오늘도 저어기 어딘가 시체 더미에 새로운 시체가  
쌓이고 또 쌓인다

다른 시체들로 놀리고 놀리면 빨간 물감은  
시체 더미 아래에도 칠해진다

광주라는 도화지에 무지개색 고운 빛을  
칠하기 위해  
빨간 물감은 칠해지고 또 칠해진다

무섭고 또 무섭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차츰하게 죽은 우리 민주화 영웅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해 이름만 남겨진 영웅들, 사진 속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영웅들, 모두 묘 속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웃는 모습으로 잠들기를 바랍니다. 아픈 기억들 모두 잊고, 잠들기를 바랍니다. 그 슬픈 얼굴과 아픈 기억들 우리가 지니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겠습니다. 병든 역사를 위해 간다던 한 영웅의 말씀이 나를 울렸습니다. 희생해주신 목숨 기억하고 병든 역사 앞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겠습니다. 내년 오월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도 웃는 모습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의 영웅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 망월동에서

이준서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 사라진 봄  
제비의 한 숨 소리 가득한  
5월이 오면

항상 이별이 오고  
내 마음 속에 슬픔이 담기고  
내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계엄령을 해제하라는 당당한 외침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치열한 전투

마음 아픈 전투 속  
어느 한쪽 편만 들어야 하는  
가슴 아픈 전투 모든 게 속상합니다

5.18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망월동은 오늘도 기도가 한창인데  
그분들의 죽음이 안타까워

오늘도 울며 돌아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계엄군에게 무차별 사격을 당하고 길거리가 피로 물든 게 슬프고 또 목포에도 그런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고 몽둥이로 때리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 그들이 총 사격을 하는 날에는 나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죽는 게 싫습니다. 전쟁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승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다이어-뜨

목포환경운동연합에서 처음 만들어진 동호회

인터뷰 글 정리 | **여울편(編)**

목포환경운동연합 동호회의 시초이자 터줏대감인 ‘다이어-뜨’. 센스 있는 회원이라면 알아챘을 ‘다이어트’와 ‘뜨개’의 합성어. 걷기를 하며 ‘다이어트’도 하고 ‘다 이어’ 뜨개질을 하며 취미를 공유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들끼리 손에 손잡고 즐거운 동호회 활동을 이어보자는 중의적 의미의 이름이다.

“커튼 뜨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 색의 실을 나눠 가져간 다음, 각자 떠온 것을 이어 붙인 적이 있어요. 단순히 뜨개를 이어 뜨는 것 이상으로 활동을 함께 이어간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죠.” 조애순 대표의 설명이다. 원도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조애순’ 대표, 뜨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서영옥, 양수민 회원, 가죽공방을 운영하는 이은주 회원을 비롯하여 유혜정, 장유선, 이형숙, 최선희, 이진아, 임경숙 회원이 ‘다이어-뜨’의 구성원이다.

그동안 손을 꼼지락거리며 친환경 수세미, 소창 행주, 자수 소품 등을 만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다. 이들은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2020년에 들어온 신입회원들에게 직접 만든 삼베 수세미를 선물해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걷기보다는 뜨개에 집중하며 자투리 가죽을 이어 패치워크 가방을 만들고 뜨개로 마무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지금껏 만들었던 여러 가방과 소품들로 지난 6월 1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이질리와 함께하는 새활용 담은 이야기’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참여한 최선희 회원은 “자투리 가죽으로 색을 고르고, 자르고, 붙이고, 뚫고, 꿰매는 과정 속에 묘한 색의 어울림으로 작품이 완성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들과 마음을 나누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영옥 회원은 “작은 조각 조각들을 이어 붙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음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은주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활동을 이어 뜰 회원이 있다면, 신입회원이 되어 ‘다이어-뜨’로 다 이어보자.



© 박정식 사진작가 제공



© 박정식 사진작가 제공

\* **여울편(編)** : 목포환경운동연합 동아리. 시와 글을 쓰며 즐거움을 느낀다. 시와 수필, 취재 등 함께 글을 쓰고 소식지에 기고한다. 소식지 면 구성 등을 논의해서 의견 개진도 한다. 무엇보다 즐겁게 환경운동을 한다.

## 새롭게 (사)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3.04.01.~2023.06.19 / 가나다 순)

- 광지영(자발적)    • 김광곤(자발적)    • 김영균(자발적)    • 김해정(자발적)    • 김훈동(자발적)    • 명소운(최송춘)
- 문성은(자발적)    • 민경아(김태웅)    • 민영철(조상현)    • 박신희(자발적)    • 오창현(김영호)    • 윤용석(이명희)
- 조은애(자발적)



### 목포환경 운동연합 신임회원 한마디

#### 김훈동

“작은 정성이지만 목포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산속 숲길을 걸으며 신발에 흙이 묻는다고 숲길을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윤추구만을 위한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무분별한 환경파괴 사업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지수가 환경개발과 산업 발전의 속도만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무감각해 하며 외면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오롯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한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너, 그리고 다음 세대인 후손을 위한 환경지킴이 실천가로 행동하시는 환경운동가분들의 그 숭고하신 사명감을 진정으로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박수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함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1,000명 회원시대로!

\* 회원가입 문의 사무국(061-243-3169)



## 한 장의 사진, 하나의 단상

### <공유냉장고>

냉장고 속 음식을 꺼내 셰프들이 요리하던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누군가에게 우리집 냉장고를 열어선뜻 보여주지 부끄럽다. 딱 차 있거나 텅 비었거나 청소가 필요하다 는 생각이 앞서 든다. ‘먹는 것이 곧 나’ 라는 말이 있다. 냉장고를 통해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보여준다.

목포에 공유냉장고 1호점이 생겼다. 냉장고를 공유한다는 것은, 나누며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과 다정함이 보인다.

공유냉장고에는 누구나 음식을 채우고 가져갈 수 있다. 이웃과 다양한 먹거리를 나누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문화를 함께 만들어보자.

#### [목포 공유냉장고 1호점]

- 위치 : 전남서부종합재가센터 입구이며,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
-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성동성당, 전남서부종합재가센터 협력하여 운영중이다.



## 포 마 린

혼다V6, 야마하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전화 : 061-272-0118 / 010-9492-4207  
전남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21-11

FOUR MARINE  
SINCE 1994



## 해바라기 치과

원장 이해송

전화 : 061-279-2886 / 010-2654-2875  
전남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 (산정동)

### 목포 환경운동 40년,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26년 기념행사

1983년 목포시민의 식수원 영산강 지키기 싸움에서 시작된 목포 환경운동의 40주년을 기념하며, 26살의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발돋움을 위한 2030비전을 수립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6월 23일(금) 오후6시30분~ (1시간 30분 내외)
장 소	유달예술타운 공연장 3층 (전남 목포시 유달로 180)
행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전행사 갯돌 비나리 공연, 물 문제 다큐 상영</li> <li>• 40주년 축하 영상</li> <li>• 목포 환경운동 40년 경과, 활동보고</li> <li>• 영산호보전회 김창용 고문 감사 선물 증정</li> <li>• 2030비전 선포</li> <li>• 연소득 1% 후원약정</li> <li>• 회원 퍼포먼스(일본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류 반대) *드레스 코드 : 하얀색 상의</li> </ul>

### 회원 참여 캠페인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우리의 요구]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2.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3.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작성된 서명 용지는 6월 24일 1차로 취합한 후 국회,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서명 방법: 휴대폰 카메라로 오른쪽 큐알코드를 찍어서 링크 접속
  - 오프라인 서명 참여: 서명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사무국 061-243-3169 / 010-8243-3169



<https://bit.ly/오염수투기저지>